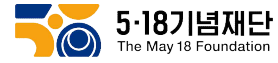


2024

5·18문학상 본상 심사평



리얼리즘 시의 취약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

- 김해자 시집 『니들의 시간』

올해 <5·18문학상> 본심에 올라온 본상 후보작들은 대부분 걸출한 대작들이라 심사위원들의 고심과 격론 끝에 김해자 시인의 시집 <니들의 시간>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이 광주 '5·18정신'을 이제는 안에서 보는 고유명사를 넘어 밖에서 보는 보통명사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전향적 인식에 공감한 탓이다. 리얼리즘 문학의 영토를 확장해 기억 저편의 재구성이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김해자 시인의 <니들의 시간>은 리얼리즘 시의 취약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시집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슬픔을 꿰뚫고 폭력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하다. 삶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소출한 진정성 있는 시편들이 약자들의 목소리가 낮아서 더욱 아프고, 시간의 걸음이 느려서 더욱 자세히 보인다. 가난한 영혼이 고통 받는 모든 그늘에 김해자의 시와 숨결이 가늘게 떨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일상의 겉에서 언어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니들의 시간>은 거시적인 역사의 당위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인이 살아온 혹은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에서 역사에 대한 집요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시와 정치 또는 시와 현실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뛰어난 시적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모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흔쾌히 수상작으로 결정했음을 밝혀둔다.

2024 5·18문학상 본상 심사위원(가나다순)

심사위원장 하상일

심사위원 김형수

심사위원 이산하

심사위원 이성자